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최 이 숙**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모성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
 2. 돌봄의 윤리와 그 정치적 가능성
Ⅲ. 만남 50일만의 단체 창립의 동인-맘고리즘 현실에 대한 반란
Ⅳ. 모성에 대한 전유-사회적 모성을 표방하다.
Ⅴ. 당사자 정치와 돌봄 이슈의 의제화
 1. 돌봄행위의 저평가와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
 2. “우리아이들의 문제이고 아무도 안 해주니까”
 - 이슈의 발굴과 양육자간의 연대, 그 속에서 부각된 공적 책임
Ⅵ. 나가며-정치적 모성의 등장과 돌봄의 의제화

▌국문초록

이 글은 ‘정치하는엄마들’을 사례로 육아, 육아와 생산노동을 저글링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맘고리즘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반란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이들은 모성에 대한 신화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화된 모성을 주창하고, 지난 3년간 양육자의 위치성에 기초하여 한국사회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은 ‘모성’을 둘러싼 다층적 의미와 그 정치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그동안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돌봄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제어 : 모성, 정치하는엄마들, 돌봄의 윤리. 돌봄민주주의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9S1A5C2A02081161).

** 동아대 사회학과(socio21@gmail.com)

Ⅰ. 들어가며

>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이끌어 내며 사립 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정치하는엄마들'을 선정했다"며 "이들은 엄마들이 시민적 역량을 지닌 정치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중략) 이 단체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장애, 외모를 차별하는 혐오 콘텐츠를 지적하는 '핑크노모어' 프로젝트 △스쿨미투 당사자 법률지원 및 스쿨미투 학교명단 공개운동 △칼퇴근법 통과 촉구 등의 활동을 해왔다.[1)]

2020년 1월 17일 1년여를 끌어온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언론들은 비리를 폭로한 평범한 엄마 아빠가 유치원 3법 통과의 주역이라고 평하면서 2018년 3월 감사 적발 유치원의 정보공개 청구부터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이끌어낸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조명했다. 2019년 오마이 뉴스는 [2019 올해의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을 선정하면서 먼저 떠난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남은 아이들"을 위해 각자의 터전에서 싸워오던 이들을 매개한 사회단체로 '정치하는엄마들'을 소개했다.[2)]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이 한 칼럼을 계기로 모인지 50일 만에 단체를 창립하고 지난 3년간 주로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의미는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각자도생하면서 오랫동안 '고립된 존재'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활동의 역사는 짧지 않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의 활동, 민주화운동 시기 민가협, 유가협, 그리고 최근에 결성된 '다시는'에 이르기까지, 엄마들은 자녀의 죽음과 피해를 대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온라인 공간이 등장한 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엄마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더욱 빈번해졌다. 2008년 미국

1) 서울시 성평등 대상에'정치하는엄마들'선정(2019. 6.19). 한겨레신문.
2) 남은 아이들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9 올해의 인물]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2019. 12.16)

산 수입 소 반대운동 당시 유모차부대 및 현수막 운동, ‘미세먼지 대책 촉구 위원회’의 활동처럼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이들은 적극 개입하면서 ‘엄마’라는 위치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기혼유자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거나,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구조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다.[3]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정치하는엄마들’이 발간한 저서(『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회원들의 언론 인터뷰 및 기고글, 창립 당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표된 단체 성명서 및 보도 자료,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언론보도[4]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집단 모성을 표방하며 등장한 이들의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전통적인 돌봄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고립된 존재로 살아온 엄마들이 서로 연결되어 실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모성’은 어떻게 새롭게 사유되고, ‘돌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슈화되었고 이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5]

3) 이는 30대 엄마들의 글쓰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정치하는엄마들 1기 공동대표를 역임했었던 이고은의 『요즘 엄마들』, 기혼 여성들이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부너미’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4) 언론보도의 경우, 올해 5월 30일 이전까지 나온 신문기사 및 방송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5)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백운희 공동대표가 밝혔듯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부분 SNS를 기반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원희복, [원희복의 인물탐구]-‘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운희 “전국 엄마여! 단결하면 바뀐다”, 경향신문, 2020.2.1.)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의 의제 설정 및 회원들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에 대한 탐구, 이에 기초한 활동의 양상과 그 의미 및 한계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세밀한 탐구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 내에서의 소통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는 별도의 저작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문제의식, 의제와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격적인 엄마정치를 표방한 이 단체에서 모성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형성/실현되었는지, ‘정치하는엄마들’의 창립과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Ⅱ.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모성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

오랫동안 모성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생득적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임신과 출산이 생물학적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되기에, 아이에 대한 애착은 여성의 본성으로 논의되었다.

여성주의 연구들은 모성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성은 특정 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근거한 희생적 모성신화가 오랫동안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적/담론적 조건이었음을 비판하였다. 연구자들은 모성신화가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개인'은 삭제된 채 '어머니'로서의 삶만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다.[6)]

서구에서 2세대 여성운동이 본격화되었던 1960년대부터 여성억압의 상징이었던 모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생리적/육체적인 것으로서의 모성(maternity), 사회의 구성물이자 제도로서의 모성(motherhood)과 여성이 실제 수행하는 경험으로서의 모성(mothering)을 구분하면서, 후자에 대해 새로이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이 아이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억압적인 것만은 아니며, 여성들이 돌봄의 책임을 담당한다는 것이 남아/여아, 그리고 어머니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했다. 또 돌봄의 가치가 경쟁적인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7)] 길리건은 자녀의 양육을 엄마가 수행하게 되면서, 딸과 아들은 서로 다른 도덕 관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대상관계이론을 재구성하면서 엄마와 심리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딸은 관계 지향적이며 타인의 정서에 보다 반응하는(responsive) 성향을 발전시키

6)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모성의 담론과 현실-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43~67쪽.
7) 이정옥, 위의 글 ; 이선형,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연구」, 『페미니즘 연구』 11(1), 한국여성연구소, 2011, 59~99쪽.

는 반면, 심리적 단절감을 겪는 아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8] 러딕은 모성을 돌봄 노동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면서, 자녀 양육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모성적 사유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성적 사유란 아이가 필요로 하는 바(requirement)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보존애, 양육, 사회적응이라고 규정하였다. 생물학적 측면이 강한 출산의 노고 역시 태아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의 일부라는 것이다.[9] 길리건과 유사하게 러딕 역시 이러한 모성적 사유가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다듬어진 이들의 실천이-주의력, 리얼리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 갖는 정치적 가능성은 군국주의와 대별되는 평화의 정치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10]

모성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모성담론이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동원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시머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머니 운동을 사례로 모성경험에 기초한 여성적 가치-보살핌, 공감, 책임감-가 민주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드러냈다. 억압적 정치 상황에서 자녀를 잃은 양육자로서의 위치성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여성의 의식고양 및 공적 영역에서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1] 정치적 모성과 시민권의 문제를 검토한 워브너는 모성 경험(mothering)에 근거한 여성들의 활동이 이성주의적 시민권 모델을 돌봄과 공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왔으며, 남성의 권위주의와 배제에 맞선 여성들의 도전을 가능케했다고 보았다.[12]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사회운동과 사회정책 담론을 분석한 디마코는 모성의 정치화를 사회적 모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아이들과 관련된 필요를 정치적 요구로 의제화하고 정치적 행동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했음을 논의하였다.[13] 카레온과 모그

---

8)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동녘, 1997.
9) 사라 러딕, 이혜정 옮김,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적 현실사, 2002, 102~107쪽.
10) 사리 러딕, 위의 책.
11) J. Schirmer, 'The Seeking of Truth and the Gendering of Consciousness: The COMADRES of El Salvador and the Conavigua Widows of Guatemala', in Sarah A. Radcliffe and Sallie Westwood (eds) *'Viva': Women and Popular Protest in Latin America*, London:Routledge, 1993, 30~64.
12) P. Werbner. 'Political Motherhood and the Feminisation of Citizenship: Women's Activism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Pnina Werbner and Nira Yuval Davis, eds.,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London: Zed, 1999, 221~245.
13) G. Di Marco. 'Social justice and gender right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9,* 2009,

하담은 모성적 프레임-모성, 모성경험, 엄마로서의 정체성의 요소들-은 하나의 문화적 징표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 동원되는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모성주의가(maternalism) 항상 운동초기부터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주의를 표방한 모성주의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생활양식 및 문화와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14] 유사한 관점에서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여성들의 활동을 분석한 무하진과 웨스톤은 여성활동가들이 가부장제와 협상하고 때로는 전통적인 모성을 동원하면서 이집트 민주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이를 보호하는 모성으로서의 위치를 넘어 정치적 모성은 시위대를 독려하고, 국가폭력에 노출된 시위대를 보호하고 군대 및 국가권력과 결탁한 기관들을 부끄럽게 만듦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15]

이상의 연구들은 이제까지 억압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모성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가능케 해주었으며 모성의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케 해주었다. 또한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돌봄의 윤리와 그 정치적 가능성

길리건과 러딕 이후 어머니 노릇(mothering)이 갖는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돌봄의 윤리(care of ethics)를 정치적 실천으로서 조망하려는 여러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돌봄의 윤리를 통해 근대 철학에서 가정하는 독립적인 자아 개념을 뛰어 넘어 관계적 자아 개념을 형성/발전시켰다.[16] 모든 인간은 의존을 경험하며, 취약한 의존인의 돌봄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박하고 또한 도덕적인데, 이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돌봄의 윤리이다. 공감, 동감, 민감성, 책임감 있는 반응에 근거한 돌봄의 윤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관계와 맥락이다.

43~55.

14) M. E. Carreon & Valentine M. Moghadam, "'Resistance is fertile": Revisiting maternalist frames across cases of women's mobiliz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51,* 2015, 19-30,

15) A. Mhajne & C.l Whetstone, 「The use of political motherhood in Egypt's Arab Spring uprising and aftermath」,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0*:1, 2018, 54-68.

16) 조주영, 「새로운 도덕 패러다임으로서의 보살핌 윤리-헤크만의 길리건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103~125쪽.

최근의 연구들은 이 도덕윤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맥락 속에서 '돌봄'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돌봄의 윤리를 정치적 실천의 맥락에서 논의한 트론토는 인간 존재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인 돌봄이 가부장제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의 조건 속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않음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 돌봄은 성별화된 가정이나 시장 기제를 통해 그 책임이 분배되면서 특정 계급, 특정 성, 특정 인종에게 전가되었음을 비판하였다.[17] 트론토를 비롯하여 최근의 돌봄 연구자들은 돌봄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임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서구의 이성중심적 철학과 경제시스템에 의한 돌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논의하였다.[18] 키테이는 사랑의 노동으로 치부되는 돌봄 노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돌봄자와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즉 돌봄자를 보살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인도의 둘리아(doulia) 시스템을 논의하면서 돌봄이 낳는 이중적인 의존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한 사회의 돌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돌봄 의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취약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달자-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적인 돌봄의 윤리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다양한 돌봄(예를 들어 고령 부모를 돌보는 아이, 한부모 가족, 연인의 아이를 돌보는 레즈비언 여성)을 지지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키테이는 장애를 지닌 아이를 양육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러딕이 제안한 모성적 사유가 특정 상황과 조건 속에서 구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평등이 구현될 때만이 모두를 위한 평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트론토는 남성과 특정 계급에게 부여된 돌봄 무임승차권을 회수하고, 민주적 다수를 통한 "함께 돌봄"의 정치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누구나 돌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민주적 돌봄의 제도화가 사람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향상에 핵심적인

17) 트론토, 김희강 · 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18) 김희강,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36(1), 한국여성학회, 2020, 59~93쪽 ; 에바 키테이, 김희강 · 나상원 옮김,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박영사, 2016 ; 트론토, 위의 책.
19) 키테이, 위의 책.

부분임을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에 근거한 정부 및 사회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들은 돌봄 노동 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돌봄 민주주의의 정착/확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Ⅲ. 만남 50일만의 단체 창립의 동인–'맘고리즘'[20] 현실에 대한 반란

관련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편의 칼럼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출산했던 장하나 전의원은 2017년 3월부터 한겨레신문'에 "장하나의 엄마정치"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과 관련된 어려움들은 인터넷 검색과 상품구매 통해 해결하는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은폐와 무관심이 출산 이후 엄마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해 엄마들에게 '정치'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 저는 앞으로 이 글을 통해 우리 엄마들과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정치는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이 정치이고 정치세력화입니다. 그것이 정치 이전의 정치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그것이 가장 멋진 민주주의입니다.
>
> 정치에 여성(엄마)들이 나서야만 독박육아를 끝장내고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울한 여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아이들과 제 딸 두리에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저와 마음이 통하신다면, 이제 우리 만납시

20) '맘고리즘'은 육아와 돌봄을 여성(mom)에게 전가함으로써 돌아가는 한국사회의 작동방식(algorizm)을 일컫는 말로 2017년 경향신문의 특집기사 "맘고리즘을 넘어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이영경, 「맘고리즘을 넘어서1-엄마에게 육아 전담시키는 한국 사회…전업맘도 워킹맘도 '배터리 방전' 직전」, 『경향신문』, 2017.1.2). 이후 여성 '독박육아' 즉 여성이 주 양육자로 육아를 (거의 전적으로) 전담하는 현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 왔다.

다.[21]

'P.S'의 형식으로 글의 말미에 페이스북 주소를 남기면서(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며 '엄마정치'를 만들어가자"고 썼다. 이후 2주후에 게재된 두 번째 칼럼에서 그녀는 "기대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중략) 제 가슴을 뛰게 만든 건 '엄마 정치를 해보자, 만나자, 달려가겠다'는 엄마들이 진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2주 뒤인 4월 2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남긴다.

> "예상대로 30명의 엄마가 각자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동안, 말하는 이도 듣는 이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만으로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2시간 만에 그 엄마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중략) 행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엄마들은 한 시간 만에 '정치하는엄마들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결의했는데, 저만 빼고 아무도 놀라는 기색이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22]

첫 만남 이후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담당했던 엄마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갔고, 5월 16일 준비모임에 이어 6월 11일 창립에 이르렀다.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단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1차적으로 연결된 상황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제안이 오프라인에서의 실천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풍경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한다. '정치하는 엄마들' 1기 공동대표였던 이고은은

> 자신이 엄마가 되어서 마주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언니의 '우리 만납시다' 한마디에 꽂혀서 (모인 게 아닐까), 저는 그 문장을 봤을 때 정말 딱, 저한테 '너'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략) 그래서 생각은 많은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던 엄마들을 불러들인, 마음을

21) 장하나, 「엄마들이 정치에 나서야만 '독박육아' 끝장낸다!」, 『한겨레신문』, 2017.3.25.
22) 장하나, 「저는 엄마들을 배신한 엄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5.6.

움직이는 한 문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23]

전직 국회의원의 글에 감정이입을 하고 '만나자'는 제안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는 소위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세대의 삶의 여정과 관련이 있다. 지금의 30-40세대는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경쟁하여 회사에 들어갔고, 이전세대와 같은 '현모양처'를 자신의 삶의 지향으로 놓았던 세대는 아니다. 그렇기에 이들 여성에게 출산은 "여성의 삶을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사건"[24]으로 규정된다.

> 나는 출산을 기점으로 세상에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육아란 절대적으로 엄마인 나의 몫이 컸고, 아이로 인해 급작스럽게 늘어난 가사노동량은 나를 매일같이 파김치로 만들었다. 나는 아침마다 직장으로 피신하는 꼴이 되었으며 아이는 하루 종일 익숙한 집 대신 낯선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아닌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런 기이한 일상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못되었다.[25]

출산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엄마가 되는 것'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의 임신, 출산, 그리고 엄마노릇(mothering)은 신성시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생물학적 엄마(maternity)와 엄마노릇(mothering)이 미분리 상태에 놓였기에, 친모의 희생은 여성의 의무로 엄마는 무욕망의 존재로 규정되었다.[26] 이러한 가정 속에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사람의 양육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엄마'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양육<사회활동,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에 대한 비난은 일정동안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가 초기 양육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하듯이, 여성들은 모성수행에 과정에서 힘듦, 무기력, 열등함,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

23) 정치하는엄마들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3인 대담: 이고은, 장하나,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생각의 힘, 2018, 249쪽. 이는 이고은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회원들이 처음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이기도 하다.
24) 이고은, 『요즘엄마들』, AIMA, 2016, 서문.
25) 이고은, 위의 책.
26) 최은영, 「한국여성의 모성기획과 균열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9쪽.

을 느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 모성' 담론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발화될 수 없는 것', 발화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던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 대한 말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온라인 공간의 등장과 함께였다. 특히 본격적인 온라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30-40세대에게 '엄마노릇'은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데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자신이 꿈꾸던 삶과 현실 간의 괴리는 감정, 공감이 곁들여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표출될 수 있었다. 또한 모성신화에 가려진 임신, 출산, 육아의 현실 그 속에 존재하는 모순과 이들이 겪는 실존적 불안감은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로소 가시화되었다.[28]

엄마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 때때로 표출되는 분노의 정서는 사회구조-여전히 견고한 성별분업과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저출산의 상황이 '출산=애국'으로 규정하고,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켰지만[29],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양육자가 직면하는 문제, 즉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어린이집(이후 유치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함께 대기를 걸어야했고, 입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자를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직장에서의 생사여탈권이 달라졌다.[30] 운 좋게 아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엄마=양육의 주 책무

---

27) 김인지 · 이숙현, 「어머니의 자녀 훈육 경험 :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와 대처」, 『가족과문화』 24(2), 2012, 1~38쪽 ; 신송이,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모성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28) 홍남희, 「초기 모성수행기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 『미디어, 젠더 & 문화』 2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135~164쪽.

2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노법래 · 양경은, 「한국 사회 저출산 논의 구조와 그 변환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 2000년 이후 언론 기사문에 대한 토픽 모델링과 토픽 구조의 시계열적 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1(4),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153~175쪽 ; 김연권,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 분석」, 『시민인문학』 36,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43~100쪽.

30)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중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의하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38.2%), 임신 및 출산(22.6%)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63.3%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민아, 「경력단절여성 170만명… 이유 1위는 "육아"」, 『조선일보』 2019.11.26.) 2010년 이후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 원인을 분석한 이승현과 박영일의 연구는 자녀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반자발적으로 여성들은 직장을

자’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며 ‘시간 빈곤자’의 삶을 견뎌야만 했다.[31] 최근의 ‘맘충’, ‘노키즈 존’ 논란이 함축하듯이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애국의 상징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하기만 하다. 연이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및 사망사건,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생명안전법에 대한 부모들의 절규가 보여주듯 아이를 낳았지만, 이들의 안전과 생명은 여전히 불안하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열풍은 여성에게 끊임없이 강요되지만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실, 그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었다. 페미니즘의 언어를 통해 “차별로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략) 느끼는 불합리와 분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페미니즘 독서모임 ‘부너미’의 제안자 이성경의 고백은 부정의한 현실을 말하고 바꾸려는 엄마정치에 대한 갈망이 여성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자리했음을 시사한다.[32] ‘정치하는엄마들’ 모임의 제안자인 장하나는 4월 22일 전국각지에서 아이를 동반한 30여명의 여성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어떻게 육아를 분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해왔잖아요. (중략)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없었죠. 지금까지 관련 문제들은 여기저기서 막 지적을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가, 제가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행동하고 그러자고 하니까 딱 이정도 인원이 모인 것 같아요”[33]

엄마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수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떠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현 · 박영일,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4(3), 2017, 45~68쪽.

31)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과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육아제외)은 평일 아내 189.4분 남편 37.2분이었고, 토요일의 경우, 여성이 216.2분 남편 70.2분, 일요일의 경우 아내 214.7분, 남편 74.1분이었다. 육아시간의 경우, 평일 아내 286.7분, 남편 71.9분, 토요일 아내 376.7분, 남편 200.9분, 일요일 아내 377.5분 남편 219.1분이었다. 이소영 외,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2) 부너미 외,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민들레, 2019, 들어가기 참조.

33) 정치하는엄마들, 앞의 책, 247쪽.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정체성의 정치가 일정 시도되고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었던 여성들의 정치참여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촛불시위를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온라인상의 제안이 물리적 공간에서의 정치 행동으로 이어지고, 서로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 거리에서 함께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34] 장하나 전의원의 제안에 '엄마'로서 사회/구조적 부조리를 감내했던 여성들이 반응하고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시도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맘고리즘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를 "엄마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35] 해소할 수 없었던 조건은 엄마들의 단체 창립을 끌어낸 핵심 동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공동대표였던 조성실은 첫 만남에 대한 소회를 "혼자가 아니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나도 할 수 있다"로 표현하였다.[36] 결국 '정치하는엄마들'의 탄생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모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에 기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욕구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Ⅳ. 모성에 대한 전유-사회적 모성을 표방하다.

2017년 창립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의 1년을 정리한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의 부제는 "모성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반격을 시작하다"이다. 이제까지 아이 돌봄을 홀로 엄마에게 독박을 씌운 희생적 모성에 대한 신화, 그에 기초한 사회 구조와 단절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정관에 드러나듯이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가 엄마다'라는 구호 속에서 이들은 평등 육아가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모성', '사회적 모성'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

34) 이에 대해서는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3), 2010, 146~191쪽 ; 김수아, 「[쟁점과 동향]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 『페미니즘 연구』 12(1), 2012, 193~217쪽 참고.

35)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정치하는엄마들, 앞의 책, 258~259쪽)

36) 정치하는엄마들, 위의 책, 258쪽.

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 · 여성 ·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 · 지역 공동체 · 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 · 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37]

집단 모성에 대한 논의[38]는 '아빠를 집으로 돌려달라'는 식의 성평등 육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정상가족의 신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여전히 육아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고, 아이 돌봄이 개인이나 한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것이 '집단 모성', '사회적 모성'이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존의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성인과 국가 및 사회 시스템까지도 집단 모성의 주체로 지목했다. 이 집단모성이 구현될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구조로 변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공생과 관용의 정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39]

이러한 담론은 사실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다. 최은영이 지적하듯이 2010년대 한국사회의 모성 인식에서 생물학적 모성(maternity)과 양육적 모성(motherhood)이 서서히 분리되었다.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다른 양육자 또는 양육기관에 자녀 돌봄을 의존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모성=양육적 모성'의 공식은 깨질 수 밖에 없었고, 양육적 모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갔다.[40] 집단 모성, 사회적 모성에 대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제안은 생

37) 정치하는엄마들 정관(https://www.politicalmamas.kr/post/146)
38)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2부 '집단모성이 사회를 바꾼다'에 집단 모성이 제안된 배경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정치하는엄마들, 앞의 책, 42~54쪽).
39) 김소향 · 이고은 · 최지현, 「집단모성이 세상을 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긴다』, 47쪽.

물학적 모성에 기초한 희생적 모성신화에서 벗어나고 있던 사회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41] 또한 이 정관은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자, 인간의 '도덕적 의무'로 돌봄을 규정한 최근의 논의를 연상시킨다. 사회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돌봄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민적 권리로 돌봄을 규정하고, 돌봄의 책임이 사회 속에서 분배될 때, 생물학적 엄마들이 주 양육자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돌봄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것[42]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모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돌봄의 민주주의가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길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모두가 엄마다'임을 엄마들의 새로운 선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해서 집단 모성이 연대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43] "엄마가 됨으로써 타인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내려놓은 경험을 반복한 사람"[44]들이 엄마의 감수성, 공감력, 포용력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에 함께 저항하겠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즉 "생명에 대해 전인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엄마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차별, 불평등,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동체", 즉 아이들을 양육하기 보다 좋은 사회[45]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정관에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공백을 초래하는 장시간의 노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속 차별과 배제 및 환경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발언해왔다.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성명서를 제외한 40개 성명서 중 14개는 성평등과 인권(페미니즘 교육 교사에 대한 공격 비판, 스쿨미투, 안희정 전지사 판결에 대한 입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댓글 비판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6개는 환경(탈핵, 소망풍선 행사 등), 평화와 배치되

40) 최은영, 앞의 논문.
41) 실질적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은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창립 초부터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회원, 비혼 회원, 성소수자 회원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42) 트론토, 앞의 책.
43) 김소향 · 이고은 · 최지현, 앞의 글, 53쪽.
44) 김소향 · 이고은 · 최지현, 앞의 글, 44쪽.
45) 김재희 · 이중삼, 「찍을 후보 없다면 '나'에게 투표하라-[광장에서 국회로 '총선 마이크'⑳] 김정덕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下)」, 『베이비뉴스』 2020.4.1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07)

는 어린이들의 무기 모방 장난감 등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관과 다양한 이슈에 걸친 활동은 이 단체가 엄마들이 느끼는 차별적 경험과 위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성에 대한 정치적 전유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실천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등장은 가족을 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활약하는[46] 여성주의 그룹이 한국에서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Ⅴ. 당사자 정치와 돌봄 이슈의 의제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창기부터 많이 하는 말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엄마들이 직접 나섰다는 발언이다. 2017년 첫 기자 회견문에서 이들은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재산은 41억원, 평균 연령은 55.5세 그리고 83%가 남성"인 상황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엄마'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47]라는 조성실 1기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이들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구조적 문제와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이는 창립 직후 문재인 정부 국민 인수위 '광화문 1번가'에 대한 정책제안 작업에서부터 드러났는데, 당시 '정치하는엄마들'이 제안한 이슈는 공공보육시설 및 돌봄 기관의 확대/운영 , 육아휴직, 아이돌보미 서비스, 양육수당,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돌봄의 제도적 측면을 둘러싼 이슈들, 양육자만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문제(ex-아이동반 화장실)등이 제기되었다. "양육당사자는 정치에 최적화된"[48]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듯, 그동안 기성의 정치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의제들이 논의되었다.[49] 2019년 12월까지 발표된 86

46) Schirmer, 앞의 논문 ; Werber, 앞의 논문.
47) 최규화, 「엄마에게 정치란?」, 『베이비뉴스』, 2018. 1. 29.
48) 백운희, 「사회는 "애나 잘 키워라"지만 엄마들은 "정치한다"」, 『일다』, 2019. 4.19.
49) 이는 2017년 창립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의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 및 SNS(텔레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에서 활동해야할 이슈가 제안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2020년 5월 현재 '정치하는엄마들' 내에는 4개의 팀(법률팀, 급식팀, 미디어감시팀, 스쿨미투팀)과 3개의 자조모임, 그리고 3개의 지역모임이 공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회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소모임들이 운영되고 있다.

개의 성명서와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등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당사자 정치'를 지향했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의제화 했던 이슈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돌봄 행위의 저평가와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

'정치하는엄마들'의 결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유발하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성을 돌봄에서 무임승차케 만드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때문에 창립초기 회원들의 논의는 성별화된 돌봄 책임을 개선하는데 맞춰졌다. "보노보노(보육-노동-보육-노동"[50]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초창기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의 문제가 결국 노동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해왔다.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에서 백운희와 김신애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텔방에서의 대화는 늘 '기-승-전-노동시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고 서술했다.[51] 이는 조성실이 지적하듯, 아이가 자라는 데에는 필요한 부모의 시간 대신 관련 서비스를 돈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다.[52] 또한 긴 노동시간이 독박육아, 노동시장 내의 여성에 대한 저평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간파한 것이기도 했다.[53] '맘고리즘'으로 지칭되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천으로 2017년 6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창립이후 첫 활동으로 '칼퇴근법 및 보육추경 6월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문재인정부 국민 정책 제안 프로젝트였던 '광화문 1번가'에도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부모 참여를 의무화하고, 예산증액 및 보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보육관련 분야 정책과 함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율의 목표치 제시, 칼퇴근법의 연내 통과, 대

50) 백운희, 앞의 글.
51) 김신애 · 백운희, 「거리에 나서다」,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2018, 86~103쪽.
52) 조성실, 「엄마, 싸움을 시작하다」, 『베이비뉴스』, 2018. 3. 30.
53)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들의 칼럼과 논평(https://www.politicalmamas.kr/Column_Essay)를 통해 역시 시간부족에 시달리며 소진되어 가는 엄마들의 일상은 쉽게 발견된다. 또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해 다룬 2개의 프로그램 'JTBC 소셜섹스토리'의 '정치하는엄마들1'(https://www.youtube.com/watch?v=cjmHe-Om5DU)과 '정치하는엄마들2(https://www.youtube.com/watch?v=NUnrfU-cMjs)와 'SBS 스페셜-앵그리맘의 반격-(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274413) 에서 잘 드러난다

체인력 활용제도의 민간 확대, 스마트 근로감독의 실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모성권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돌봄과 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창립 직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저출산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여 양육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돌봄 관련 현실적 정책의 부재-경력단절-저출생의 고리에 대해 역설하는 스피커로 서서히 자리 잡았다.[54]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나 독박육아의 상황은 돌봄이 임금 노동에 비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돌봄이 저평가 되는 사회에 대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사회에서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의식으로도 표출되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의 파업 당시 이언주 의원의 "아무것도 모르는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발언에 대한 성명서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의원의 이 발언이 인간이 상당기간동안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을 천대하고 돌봄 노동자를 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55] 2018년에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육교사의 노동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주장을 통해, 양육자의 위치에서 아이 돌봄의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지적하였다.[56]

'정치하는엄마들'은 불평등한 돌봄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사적(private)'인 것으로 치부된 돌봄이 사실상 공적인 세계, 노동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돌봄과 노동이 양립하는 사회의 구축, 돌봄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의 이행이 한국사회 돌봄책임자들이 겪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을 완화해갈 수 있음을 발언해 왔다.[57]

---

54) 이에 대해서는 '정치하는엄마들'의 홈페이지(https://www.politicalmamas.kr/Press_Release)를 참고할 것.

55) 이언주는 '밥하는 아줌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가(정치하는엄마들, 앞의 책 324~325쪽).

56) 권혁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은 탁상행정…8시간 연속근무 허용해야」, 『서울경제신문』 2018. 6.28.

57) 트론토, 앞의 책 ; 김희강, 앞의 논문.

2.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아무도 안 해주니까”
- 이슈의 발굴과 양육자간 연대, 그 속에서 부각된 공적 책임

‘정치하는엄마들’이 대중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비리유치원’이슈였다. 단체 창립 초기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는 단체의 핵심이슈 중 하나였고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주제였다. 젠더화된 임금 노동시장과 돌봄문제가 단체 내외부적으로 부각되었던 초창기 1년 동안에도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보도의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가 보여주듯이(그림1), 단체활동의 키워드는 아이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었다.



그림 1. 2017년 창립 이후 1년 간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보도 연관어 분석



그림 2. 2017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보도 연관어 분석

유치원 문제에 대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입장은 2017년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관련 토론회 무산사태에 대한 성명서(7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계획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한 반대 성명서에서부터 공표되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2018년 5월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유치원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고, MBC의 언론보도, 2018년 정기 국정감사와 함께 통해 대중의 이슈로 부상하였다.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인 김신애 활동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다고 그 과정을 밝혔다.[58] 이들의 활동은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비리 유치원 문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입을 이끌어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 중 '유치원' 문제가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그림1, 그림2) 1차적으로 86개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 중 절반 이상(46개)이 이와 관련된 내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2018~2019년 '정치하는엄마들'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JTBC 소설라이브에 등장하는 한 윗세대 양육자가 "우리 때는 이렇게 할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나서줘서 고맙다"고 발언이 시사하듯[59],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국민적 지지는 양육의 당사자이자 아동의 보호자인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운동으로 한국사회가 수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성적 사유 중 아동에 대한 보존애(preserve love)적 실천이 부각되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제도의 미비로 위협에 처한 아이를 대변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양육자들이 손 내밀 수 있는 단체로 부상하였다. 'McDonald Out' 운동과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McDonald Out'은 2018년 여름 장하나 공동대표가 2016년 덜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시은이를(가명) 대신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엄마 최은주씨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장대표는 '정치하는엄

58)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8. 10.22 방송분. https://www.youtube.com/watch?v=xQcqsvYoBrc
59) [소셜스토리] 비리 사립유치원, '성난 엄마들의 목소리'. 2018. 10. 25. https://www.youtube.com/watch?v=CWfXEsKem5E

마들' 온라인 회의 방에 "언니들, 이거 사건 내용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읽어봐주세요."라는 맨션과 함께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다.[60] 이에 회원들이 함께 분노하고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9년 11월 피해자 가족과 맥도날드가 민사상 합의에 이를 때까지 1년여 동안 'McDonald Out'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9년 연말을 달궜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정 과정도 청와대 청원 이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가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아간 계기로 유가족들이 모이고, 회원들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본격화되었다.[61] 'McDonald Out' 운동이나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과정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 가족과 함께 하는 핵심적인 운동 주체였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앞 필리버스킹, 국회의원에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해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고 여론을 만들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우리 시대의 양육자들이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고통을 겪을 때, 이를 호소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며 해결해 갈 집단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돌봄의 정치'를 제안한 '정치하는엄마들'이 이 공백을 서서히 매워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의 책임자'라는 위치는 해당 이슈를 '나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규정하고 피해자 부모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뿌리를 제공하였다.

지난 3년간의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국회'라는 공간이다. 비리유치원 문제에도,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22년만에 급식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국정감사와 같은 국회 일정을 활용하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들은(예를 들면 박용진, 표창원, 이정미 의원등) 이들과 함께 움직였다. 이전까지의 엄마들의 정치운동에서 드러나지 않던 이러한 활동은 1차적으로는 전직 국회의원이 단체의 핵심활동가라는 점에서 기

60) 서이슬, 2019. 4.4. 맥도날드 아웃, 기업과 국가에 책임을 묻다-정치하는엄마들, 한국맥도날드 국가배송청구소송 기자회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5056&CMPT_CD=SEARCH)

61) [노영희의출발새아침] 태호아빠 "민식이법 볼모 필리버스터 믿을 수 없어". (2019.12. 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021050163821

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래로부터 조직된 모성의 정치, 엄마들의 목소리에 국가 내의 공적 기관 지지하고 함께 공명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62] 또한 공적 정치의 장에서 간과했던 돌봄의 이슈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이슈이고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생활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임을 환기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나가며–정치적 모성의 등장과 돌봄의 의제화

>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누군가 저에게 모성을 강요하는 건 반대하고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런 모성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또 페미니스트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정체성의 교집합을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부재했어요(중략)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의 숭고함, 이 두가지 가치가 부딪혀서 여성주의에 한 목소리로 동질감을 느끼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 있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그런 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해소됐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척하지 않는 이 문화를 쉽게 깰 수 없는 것 같아요.[63]

한국의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모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크게 주목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90년대까지 여성운동에서의 모성인식을 분석한 문소정에 의하면, 여성운동계에서 모성은 식민지 시기 모성교육론처럼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규정되거나(모성보호론), 모성의 사회적 구성론을 수용하면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4] 20대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기혼 여성은 가부장제의 재생산자로, 이들의 아들

62) M.E. Carreon & Moghadam (2015), 앞의 논문.
63)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3인 대담」,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2010, 258쪽.
64) 문소정, 「한국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 · 정진성 · 윤정로 공편,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1999, 나남출판.

은 한남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머니 노릇에서 출발하는 돌봄의 윤리, 그것이 갖는 정치적 가능성이 끼워들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은 '엄마', 기혼 유자녀 여성이 놓여 있는 다층적 결을 착목하고 그 속에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의제들을 제기하며 변화를 만들어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엄마'로서의 위치는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핵심적 동인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결성과 그 간의 활동은 모성적 사유가 갖는 전복적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정치적 모성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가 지적했듯이 돌봄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간은 삶의 전 과정에서 보살핌을 받아야하며, 또한 특정 상황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해야한다. 인간의 보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돌봄은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그 책임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었고, 그에 따른 차별 역시 지속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표방한 당사자 정치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둘러싼 정치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돌봄 책임자로 규정된 여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교차하는 사회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배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전 구성원들의 연대에 기초한 '함께 돌봄'의 중요성[65]을 제기하였다.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지향하는 이들의 정관과 차별에 맞선 다양한 활동은 보살핌의 윤리가 "민주주의를 가부장제로부터 구원해내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함[66]을 보여준다. 동시에 돌봄 수혜자인 아이들의 생명은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돌봄'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이 참여 여성 개개인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때로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식적인 발언과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성에 기초한 이들의 정

65) 트론토, 앞의 책 ; 김희강(2020), 앞의 논문.
66) 캐롤 길리건, 김문주 옮김, 『담대한 목소리』, 생각정원, 2018, 289쪽.

치는 '모성'을 둘러싼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동안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다양한 돌봄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논 문 투 고 일 2020년 5월 31일
논 문 심 사 일 2020년 6월 18일
논문심사완료일 2020년 6월 30일

참고문헌

김수아, 「[쟁점과 동향]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 『페미니즘 연구』 12(1), 한국여성연구소, 2012. 193-217.

김연권,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 분석」, 『시민인문학』 36,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43-100.

김예란, 「감성공론장」, 『언론과 사회』 18(3),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0, 146-191.

김인지 · 이숙현, 「어머니의 자녀 훈육 경험 :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와 대처」, 『가족과 문화』 24(2), 한국가족학회, 2012, 1-38.

김지현, 「남은 아이들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9 올해의 인물]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 『오마이뉴스』, 2019. 12.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5959&CMPT_CD=TAG_PC

김희강,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36(1), 한국여성학회, 2020, 59-93.

노법래 · 양경은, 「한국 사회 저출산 논의 구조와 그 변환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 2000년 이후 언론 기사문에 대한 토픽 모델링과 토픽 구조의 시계열적 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1(4),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153-175.

문소정, 「한국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 · 정진성 · 윤정로 공편,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69-87.

백운희, 「사회는 "애나 잘 키워라"지만 엄마들은 "정치한다"」, 『일다』, 2019. 4.19. http://ildaro.com/8440

부너미 외,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민들레, 2019.

사라 러딕, 이혜정 옮김,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적 현실사, 2002, 102-107.

신송이,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에바 페더 커테이, 김희강 · 나상원 옮김,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2018, 박영사.

원희복 [원희복의 인물탐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운희 "전국 엄마여! 단결하면 바뀐다", 202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011700011#csidxf235df5bc68903b93b9cb57da5d7d32)

이고은, 『요즘엄마들』, AIMA, 2016.

이민아, 「경력단절여성 170만명…이유 1위는 "육아"」, 『조선일보』, 2019. 11.2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6/2019112601216.html
이선형,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연구」, 『페미니즘 연구』 11(1), 한국여성연구소, 2011, 59-99
이소영 · 김은정 · 박종서 · 변수정 · 오미애 · 이상림 · 이지혜,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이승현 · 박영일,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4(3),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 2017, 45-68.
이영경, 「맘고리즘을 넘어서1-엄마에게 육아 전담시키는 한국 사회…전업맘도 워킹맘도 '배터리 방전' 직전」, 『경향신문』, 2017, 1.2,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1022302005#c2b
이정규, 「서울시 성평등 대상에 '정치하는엄마들'선정」, 『한겨레 신문』, 2019. 6.19,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8521.html#csidx238e2321448b316b1210ffa8496a559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모성의 담론과 현실-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43-67.
장하나, 「엄마들이 정치에 나서야만 '독박육아' 끝장낸다!」, 『한겨레신문』. 2017. 3.2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7972.html#csidxd747c665eda303f8c7fb1b70cf104ce
장하나, 「저는 엄마들을 배신한 엄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 5.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618.html#csidx094f1a3dd975356a698595128be1d79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생각의 힘, 2018.
조성실, 「엄마, 싸움을 시작하다」, 『베이비뉴스』, 2018. 3. 3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97
조안. C. Tronto, (김희강 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2014. 아포리아.
조주영, 「새로운 도덕 패러다임으로서의 보살핌 윤리-헤크만의 길리건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103-125.
최규화, 「엄마에게 정치란?」, 『베이비뉴스』, 2018. 1. 2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0
최은영, 「한국여성의 모성기획과 균열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캐롤 길리건, 허란주 옮김, 『다른 목소리로-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동녘, 1997.
캐롤 길리건, 김문주 옮김, 『담대한 목소리』, 생각정원, 2018.
홍남희, 「초기 모성수행기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 『미디어, 젠더 & 문화』 21, 한국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135-164.
M. E. Carreon & Valentine M. Moghadam, "'Resistance is fertile": Revisiting maternalist frames across cases of women's mobiliz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51*, 2015, 19-30.
G. Di Marco. 'Social justice and gender right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9*, 2009, 43-55.
A. Mhajne & C.l Whetstone, 'The use of political motherhood in Egypt's Arab Spring uprising and aftermath',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0*.1, 2018, 54-68.
J. Schirmer, 'The Seeking of Truth and the Gendering of Consciousness: the COMADRES of El Salvador and the Conavigua Widows of Guatemala', in Sarah A. Radcliffe and Sallie Westwood (eds) *'Viva': Women and Popular Protest in Latin America*, London:Routledge, 1993, 30-64.
P. Werbner, 'Political Motherhood and the Feminisation of Citizenship: Women's Activism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Pnina Werbner and Nira Yuval Davis, eds., *Women, Citizenship, and Difference*. London: Zed, 1999, 221-245.

Abstract

Political appropriation of motherhood and raising caring issues as social agenda
– Analysing 'Politicalmamas'

Choi, Yi-Sook*

This study explores how ordinary women who are struggle to balance caring labor and other their lives(e.g. paid labor) have organized 'Politicalmamas' and challenged the caring condition in Korea. 'Politicalmamas' were born in the background of women's revolt against inequality around care responsibility. They have escaped from mythical maternalism and advocated political motherhood and has raised various issues related to caring for Korean society. 3years activities of 'Politicalmamas' revealed the multi-layered meanings of motherhood and its political possibilitie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various care issues that were not raised by anyone in the social agenda.

Key Word : Politicalmamas, Political motherhood, ethics of care, caring democracy

* Dong-A University